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댁, 송정희 조사.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배가 밤에 성산포로 가는 길에 앞서 가는 배를 따라가다가 여에 걸려 파산되는 일이 있었다. 그 앞서 가던 배를 도체비 배라고 한다.

[제보자] 바당에 도체비 잊어. 도체빗불, 우리도 봐 놋어. 여에 도체비가 잘 나주게. 배에 잘 부서지는 디라부나네이. 온평리 가운데 여 잇인디. 일 년에 똑 두 개씩은 부서지어. 밤이 뎅기다그네. 그추룩 헨 부서지나네. 도체비가 경 나그네. 저 충무배, 그건 김 배. 큰큰헌 거란게. 충무 배가 서귀포로, 성산포 오라그네 들이메젠 조냑이 오는디. 셋부름은 건드렁허게 불어가는디 배가 앞이 나산이 온평리 앞바다에 오난 배가. 발동기가 앞에 나산 탕탕탕탕허게 막 돌아가가나네. 이 바당에 뎅겨나지 안 헤난 사람이나네

‘아, 요 배 땄랑 가민, 주름에 따라가민 가는 질로만 가민, 이제 성산포를 가질 거로구나.’ 생각hen.

이젠 온평인 들여메는 딘 엇곡, 서귀포로 나사민 성산포 가야 배 발동기 곁은 건, 큰 배 곁은 건 메주, 다른 건 들어갈 디가 엊주게. 게난 바당이나 한바당이나 안 세우민. 게난, 요 배 주름에만 갓이민 웬다 헤네 가단 보나네 기냥 헛부리난 여 우로 넘어가분 거라.

홀리는 건 도체빗불은이 여 우로 넘어가부난 그 배 또꼬망에만 땄라가당 보난, 여에가 잘칵 허게 가 걸쳐 베렌. 걸쳐 부난 그때엔 우리 집이서 그 사름덜이 오란 일주일을 살안에 그 배 다 티완. 도라무깡 다 체완에 조금에 물 약허게 들 때에 뒤부난, 웨살에 ?뜨민 도라무깡 체왓이민 그 배 우터레 띠와지민 물 막 들민 짚은 더레 끗어오젠 헷인디. 도라무깡 다 체와노나네. 혼 나흘만이 기냥, 태풍이 와싹 불어비연. 와싹 불어비연예 장화장장 부수워 가나네. 막, 그 선인덜도 앗앙.

“아이고, 하나님도 무심허네, 무심허네.”

경 허멍 막 우는 거 봐낫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체빗불, 배, 바당, 여, 온평리, 도깨비, 성산포